

## 제9장 미국 유학 생활과 환원

강명석 목사는 스스로 어렵게 학비를 벌어서 고생하며 공부를 하면서도 주일에는 교회를 출석했지만, 어느 한 교회에 등록하거나 꾸준히 출석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여러 교파형 교회를 순회하며 방문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보고 느낀 점을 조선의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글을 썼다. 그리고 그 글을 「米國教會側面觀(미국교회측면관)」이라는 주제로 『기독신보』에 4회 연재하였는데, 연재된 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크리스마스[Christmas, 성탄절(聖誕節)] 아메리카교회[America Church, 미국교회]는 크리스마스 축하식(祝賀式)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년에 크리스마스 축하식을 구경하려고 돌아다녀 보았지만, 축하식 하는 교회들을 찾지 못했다. 더구나 작년 크리스마스 날은 주일이었는데도, 평상시 주일처럼 오전에 모여서 잠깐 예배만 드릴뿐이었다. 심지어 그날 저녁에는 예배까지 그만두고 예배당(禮拜堂) 문들은 모두 닫혀있었다…。 조선에서의 크리스마스 축하식은 예배당에서만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정에서만 한다. 조선에서는 예배당에만

장식(粧飾)하지만, 미국에서는 가정에만 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예배당에는 장식도 하지 않고, 축하식도 하지 않고 캄캄하지만, 가정에는 모두 장식을 하고 축하식을 한다…. 우리 조선에서도 크리스마스 축하식이 가정 중심이 되고 개인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강명석(1933.10.11.), 「米國教會側面觀」, 『기독신보』, 7.]

“둘째, 교회음악[教會音樂, church music] 미국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보다 한 가지 특별히 굉장한 것은 교회음악의 발전이다. 미국은 어느 교회를 물론 하고 Church of Christ(그리스도의 교회) 외에는 모두 특별한 찬양대[讚揚隊, choir]가 있었으며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특별합창(特別合唱)도 하고 독창도 하며 모든 교인이 찬미(讚美)를 부를 때 그 찬미를 인도한다.” [강명석(1933.10.18.), 「米國教會側面觀 (2)」, 『기독신보』, 7. 이때 강명석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교인이 악기의 반주가 없는 아카펠라(a cappella) 찬미를 부르는 것이 각인 되었다고 여겨진다.]

“셋째, 악기[樂器, musical instrument] 미국교회 예배당의 예배 반주용 악기는 어느 예배당이든지 피아노(piano)가 아니고 파이프오르간(pipe organ)이다. 그리고 다른 악기를 사용하는 일은 별로 없다. 혹 어떤 때

바이올린 독주하는 일은 있다. 또 주일 저녁 예배 때나 수요일 밤 예배 때 찬양대 대신 바이올린(violin)을 가지고 독주(獨奏)도 하고 교인들이 찬양을 부를 때는 오르간으로 반주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어떤 주일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강명석, 『米國教會側面觀 (2)』, 7.]

“넷째, 성찬식[聖餐式, Lord's Supper(주의 만찬)] 성찬식은 교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한다. 그 방식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어떤 교회는 목회자와 주의 만찬 거행하는 일을 도와줄 자들만이 먼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그 후에 교인들이 차례로 한 열씩 강단 앞에 나와 엎드려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준다[어떤 교회는 이렇게 나와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나갈 때 헌금으로 얼마씩 두고 가는 자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으로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다 사용한다. ② 어떤 교회는 설교 후에 장로들이 떡을 가지고 다니면서 앉아있는 교인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돌아간 다음에 목회자가 장로들에게 떡을 나누어준다. 그리고 목회자가 교인을 향하여 권면한 다음에 먼저 가졌던 떡을 교인들 앞에 선(서서) 그대로 먹는다. 그때 모든 교인과 장로가 일제히 떡을 먹는다. 포도주도 그렇

게 마신다. ③ 어떤 교회는 ②와 같은 방식으로 거행하는데 다만 다른 점은 떡이나 포도주를 다 같이 일제히 먹지 않고 받는 대로 각각 먹고 각각 마신다. 대개 이 상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거행하는데 그 횟수는 어떤 교회는 주일마다 오전 예배 때 거행한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주일 저녁 예배 때에도 오전에 참여치 못한 자에게 참여하라고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주고, 또 그들에게 오전에 드리지 아니한 헌금을 거둔다.] 어떤 교회는 매월 한번씩 일정하게 거행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만으로 오전 예배 시간을 전부 사용한다. 교회마다 성찬 그릇을 갖추어 주의 만찬 거행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보기에 좋았다.” [강명석 (1933.11.1.), 「米國教會側面觀 (3)」, 『기독신보』, 7.]

강명석 목사는 이렇게 미국의 여러 교파형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미국에 온 지 1년 후인 1933년 10월에 「미국교회측면관(米國教會側面觀)」이라는 글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처음 접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장로교회, 감리교회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까지 습관화된 예배와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는 찬양을 부를 때 악기의 반주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아카펠라 찬양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 있었는데, 만약 주일 오전 예배에 불참한 교인이 저녁 예배에 참석할 경우 주의 만찬을 기념하도록 배려할 정도로 주의 만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때부터 강명석 목사는 교파형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교하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점들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자주 예배에 참석하였다.

그런 가운데 강명석 목사는 1934년 10월 『기독신보』에 「전도인의 생활과 그의 일」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런데 이 글에서 강명석에게 심경(心境)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먼저 제목에서 그는 감리교회 목사(minister) 신분이기 때문에 “목사의 생활과 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회자 호칭을 사용하여 「전도인[전도자, preacher]의 생활과 그의 일」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문의 내용에서도 교회의 직분이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징 중 하나인 ‘형제(brother)와 자매(sister)’를 자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주제의 글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명석은 미국에서 생활한 지 2년 사이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향으로

인해 ‘교회관’이 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강명석의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敎會, church]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 위에 세운 멸망되지 않을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표현된 곳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근본이 되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기관이며, 많은 영혼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이며, 하나님께 찬미를 올리고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있는 공동체이다.” [강명석 (1934.10.24.), 「전도인의 생활과 그의 일」, 『기독신보』, 5.]

“둘째, 교회와 형제자매[church and brother, sister] 교회는 주를 믿는 형제자매들로 이루어진 한 가정과 같은 신앙공동체(religious belief community)이다.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 식탁공동체(주의 만찬 공동체)를 통해 모두 한 상에서 주님의 살(떡)을 먹고, 주님의 피(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형제자매들이다. 어떤 교회든지 형제자매의 정신을 떠난 교회는 실제로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은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강령인 것이다. 또한, 사랑을 떠나서는 형제자매와 한 덩어리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고 따라서 교회도 성장할 수 없다.” [강명석, 「전도인의 생활과 그의 일」, 5.]

“셋째, 전도인과 교회[preacher and church] 전도인의 첫째가는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전도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택받은 사역자다…. 그러므로 전도인은 교회라는 제목에 대하여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하며, 신중히 생각하여 자주 강론(講論)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전도인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해보지도 않고, 정리하지도 않으며, 한 번도 강론하지도 않는다. 교회는 예배당과 다르다. 예배당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할 수 없다. 교회는 예배당보다 먼저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전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므로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그러나 전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워 성장시키는 일이므로 예배에 출석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인 형제자매가 되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데 교회에는 심장이 아주 많이

비어있는 전도인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교인들과 가까이 접촉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도인은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것을 매우 심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전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다.” [강명석, 「전도인의 생활과 그의 일」, 5.]

“넷째, 전도인과 형제자매[preacher and brother, sister] 형제자매는 영적 조직이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만이 조직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그 공동체를 조직 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사랑이다. 그런데 돈이 많은 교회와 교인 수가 많은 교회는 많지만, 사랑은 교회마다 부족하다.... 전도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안수를 받는 것은 많은 청중 앞에 서서 말씀 강론하는 일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이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먼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형제자매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랑의 정신으로 전도하여 교회를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강명석, 「전도인의 생활과 그의 일」, 5.]

강명석 목사는 미국에 온 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1935년 5월 밴더빌트대학교에 실천신학사(B. D.) 졸



업논문을 제출하였다. 그가 제출한 논문 제목은 “*The Office of the Modern Minister*”[현대 사역자의 직무]인데, 5월 17일(금)에 인준(認准)되므로 학위수여식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논문 인준 후 귀국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시점(時點)에서 마음에 갈등(葛藤, conflict)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THE OFFICE OF THE MODERN MINISTER

A THESIS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Religion of Vanderbilt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Bachelor of Divinity

By

Myungsook Kang

Written in the Department of Practical  
Theology under the supervision of  
Dr. William James Campbell.

Approved W. J. Campbell Date May 17/25

Approved \_\_\_\_\_ Date \_\_\_\_\_

밴더빌트 대학교 졸업논문 인준서, 환원역사연구소

강명석 목사의 갈등은 ‘귀국하여 조선 감리교회의 초대 총리사인 양주삼[梁柱三, 1879.~1950.?] 목사의 후광(後光)으로 감리교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기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예배에 참석하면서 갈등하는 문제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35년 6월 9일 주일 오

전에 밴더빌트대학교 주변에 있는 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Waverly-Belmont Church of Christ)의 주일 주의 만찬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조선의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전도자)인 동석기 선교사가 말씀을 강론하므로 그 강론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예배 후 강명석 목사는 자연스럽게 동석기를 만나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만남에서 강명석은 동석기의 권면(勸勉)으로 감리교회를 떠나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기기로 하는 즉 환원하기로 하므로 그의 갈등은 끝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석기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함께하려면 먼저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권면을 받고 기도하며 결정하기로 하였다. [Gospel Advocate, June 25, 1936, 620.]

강명석 목사는 갈등이 해결되었기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1935년 6월 12일(수) 밴더빌트 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여 실천신학사(B. D.) 학위를 받았다. 이어 15일(토)에는 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을 찾아가서 립스콤[C. O. Lipscomb] 장로에게 구원의 침례를 받으므로 감리교회(교파형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還元, restoration] 하였다(교적을 옮겼다). 그리고 16일 주일에는 웨이버리-벨몬트교회의 주의 만찬 예배에 참석하여 교인 등록을 하므로 그리스

도의 교회 교인,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로 신분이 변화되었다. [Gospel Advocate, June 25, 1936, 621.]

이때 강명석은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육기관에 편입하여 연장 교육을 받은 후 귀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자 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들은 학비와 생활비, 귀국 후 선교사역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까지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Gospel Advocate, June 25, 1936, 621.] 이로써 웨이버리-벨몬트교회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는 조선에 동석기, 강명석 선교사를 파송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도록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 교회는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의 통합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교회 이름도 개칭되어 있다.

첫째, 1921년에 벨몬트 침례교회(Belmont Baptist Church) 예배당을 사서 예배를 드리므로 웨이버리-벨몬트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둘째, 1974년 11월 10일(주일), 대학 그리스도의 교회[University Church of Christ]와 합병을 한 다음에 애쉬우드 그리스도의 교회[Ashwood Church of Christ]로 개칭하였다. 셋째, 1948년에 웨이버리-벨몬트교회 교인 48명이 분리 설립했던 그린 힐스 그리스도의 교회[Green Hills Church of Christ]와 애쉬우드 교회가 1988년 4월 합병한 다음에 우드몬트 힐스 그리스도의 교회[Woodmont Hills Church

of Chirst]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드몬트 힐스교회의 예배당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프랭클린 3710에 있다. [3710 Franklin Pike, Nashville, TN 37204] [“Our History”, Woodmont Hills Church of Chirst]



우드몬트 힐스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홈페이지